

# 바른 사관(史觀)

노윤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역사의 아버지’란 칭송을 듣는 헤로도토스(480~425 B.C.)는 페르시아 전쟁사인 『히스토리아』를 남겼는데 이 역사서는 그가 직접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투키디데스(471~401 B.C.)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남겼는데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가 문화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서양의 고대사는 대체로 역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연대기적 이야기체로 서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대사의 기록이 사실(史實)이라기보다는 허구성에 가까운 것은 동양의 고대사에서도 볼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260 B.C. 진(秦)의 장군 백기(白起)가 조(趙)의 병사 수십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고 천하 통일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한서(漢書)는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시기에 항우가 유방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풀고는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 유방을 죽일 음모를 꾸몄으나 유방은 책략가인 장량의 기지와 호위 무사인 번쾌의 용맹으로 자객의 칼날을 피했다는 이른바 홍문연(鴻門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당서(唐書)는 현종 시대에 일어난 안사의 난에서 양귀비와 양충국이 살해된 마외병란(馬嵬丙亂)으로 사천 지역으로 피신한 현종이 생환할 수 있었다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송사(宋史)는 후주(後周)의 황제인 세종이 죽고 7세의 어린 공제(恭帝)가 즉위함에 금군(황제의 친위대)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조광윤(趙匡胤)이 960년에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

있던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 사관이란 현재의 실천적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사는 물론 중세사도 동양이나 서양을 불문하고 모두 연대기적 서술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인은 역사 문헌을 통해 과거를 이해한다.

포스트모던 역사가인 화이트(Hayden White, 1928~)는 이런 사실을 포착하여 역사는 특별히 서술된 담론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며 과거와 모종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화이트의 말을 음미해 보면 역사란 과거와 같지 않은 서술된 담론이란 것인데 따라서 역사 편찬, 즉 역사 저술은 문학과 마찬가지로 허구성의 기록이란 것이다.

화이트의 해설을 듣고 있으면 사기(史記)에 나오는 항우본기 중에서 해하지전(垓下之戰)의 이야기가 후대의 문학 예술에 나오는 패왕별희(霸王別姬)와 오강자문(烏江自刎)의 원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연상케 한다. 왜냐하면 해하지전은 유방의 충직한 장군 한신이 끝내는 유방에게 처단되는 역사적 사실인데 엉뚱하게도 패권을 다투던 서초패왕인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후 사랑하는 아내 우희와 사별하게 된다는 『패왕별희』란 제목으로 후대의 문학(소설)이나 예술(경극) 작품의 원형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방에게 패한 항우가 오강에서 스스로 자결했다는 『오강자문』의 문학예술 작품으로 후대인들에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소진장의열전(蘇秦張儀列傳)에 나오는 합종연횡(合從連橫) 이야기도 소진이나 장의 두 사람이 생존하던 시대가 크게 차이가 있어 그들이 시기적으로 같은 역사의 무대에서 공연했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지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문학적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 사실에 토대를 둔 진정한 의미의 역사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17세기 말 이후라고 말한다. 역사학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춘 입장에서 주체적, 실천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사관(史觀)의 확립이다.

사관이란 역사적 인식의 근거에 있는 현재의 실천적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역사가 갖는 의미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역사적 서술로서의 역사, 현재에 존재하면서 행동적으로 서술하는 역사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는 역사철학자여야 하며 진정한 역사철학자는 역사학자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학과 역사철학은 영이상학적으로 고립되고 분별되며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는 항상 상호 교섭 관계에 있으며 상호간 대립하는 외중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이루어졌고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원자력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지구 온난화의 심화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원자력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관이 최근에는 사상사(思想史)로 선회했듯이 머지않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약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는 크로체(B. Croce, 1866~1952)가 “모든 역사는 모두 당대사이다”라고 했고, 콜링우드(R.G. Collingwood, 1946~1994)가 “모든 역사는 모두 사상사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를 요약하면 역사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역사적 서술로서의 역사, 현재에 존재하면서 행동적으로 서술하는 역사인 것이다.

사관에는 교훈적인 실용주의 사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神國論)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 사관, 이성(理性)에 바탕을 둔 계몽주의적 관념론적 사관, “역사란 이유 없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 관념적 인식보다는 유물론에 중점을 둔 유물사관 등이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관은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는 역사철학자여야 하며 진정한 역사철학자는 역사학자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학과 역사철학은 형이상학적으로 고립되고 분별되며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는 항상 상호 교섭 관계에 있으며 상호간 대립하는 와중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원자력에 대한 시각 변화

원자력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다. 1953년 원자력의 평화 이용(Atom for Peace)이 선언되자 각국은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와 함께 원자력이 갖는 국가 위상에 매료되어 다투어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원자력이 선진국의 표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TMI 사고와 체르노빌 참사로 원자력의 위험성이 크게 노출되면서 원자력 개발은 점차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이루어졌고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원자력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지구 온난화의 심화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원자력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관이 최근에는 사상사(思想史)로 선회했듯이 머지않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